

## 종단연구의 가치: 삶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침판

### The Value of Longitudinal Study: A Mirror of Life and a Compass for the Future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 (초록)

종단연구는 한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 학문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의미와 가치가 적지 않다. 종단연구의 의미와 가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더 커진다. 그 이유는 생의 후반기에서는 젊은 시절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개인들 간의 변산성이 더 커지는데, 이러한 변산성은 오직 시간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할 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연구는 시간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지만, 종단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사회적 가치와 미래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고령자, 노화, 종단연구

#### (Abstract)

Longitudinal study designs are scientif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meaningful and of value because their findings show people's life trajectories honestly. The meaning and value would be getting greater and greater if the older adults were participants for the longitudinal study. The main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 inter-individual variations would be getting bigger owing to the greater environmental influences in the second half of life and the variations can be uncovered only through repeated observations of individuals on the temporal dimension. Although it is not easy to carry out the longitudinal study in reality due to consuming time and money too much, we should understand its scientific and social value as well as its meaning in the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정태연 교수 (e-mail: [tjung@cau.ac.kr](mailto:tjung@cau.ac.kr)).

future.

*Key words : Older adults, Aging, Longitudinal study*

---

심리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천착한 이후, 연구자들은 그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론’과 그에 부합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용해 왔다. 이때 심리학자들은 보통 방법론과 방법이라는 두 전문용어를 동일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뜻을 가진 개념으로 생각해서 서로 혼용해 왔다. 그러나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용어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Little, 1991). 방법론이라는 용어는 방법에 대한 학문으로, 추론의 원리를 과학적 탐구에서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적인 논쟁이다. 크게 양적 연구방법론이나 질적 연구방법론이 대표적인데, 이 두 방법론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다르고 그에 따라 인간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그 가정과 전제도 다르다(Kaplan, 2017).

이에 비하여 방법은 실제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기법을 의미한다. 어떤 방법은 하나의 방법론에 기초할 수도 있는데, 척도를 사용하는 조사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론에 기초한 것이고, 개방형 질문을 통한 면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은 두 방법론에 모두 기초할 수도 있다.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는 동일한 사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에

모두 기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년기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행복을 알아 보기 위해서, 그들을 2년에 한 번씩 행복 척도를 사용하여 양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행복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질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종단연구는 주로 발달심리학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특히 생의 후반기에 이를 때까지의 노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채용하는 방법이다. 흔히 종단연구를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와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물론 이 두 방법은 연령이나 세대의 효과를 살펴볼 때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Baltes, 1968). 그럼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이 둘을 구분 짓는 핵심적인 잣대이다. 종단연구가 이러한 그림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발달심리학의 존재적 가치를 왜곡 없이 실현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종단연구는 이처럼 사람들의 삶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학문적 가치 이외에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 연구가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가지는 의미나 함축하는 바도 실로 크다.

특정한 사회의 어떤 특성이나 한계점 혹은 향후 지향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거나, 선진국이라고 하

는 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에 부합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대적 비교와 그 결과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나 그 기준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한 평가는 거의 모두 알고 보면 상대적 비교에 기초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기법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연구자들도 상당히 중시하는 전략이다. 사실 심리학에서 문화라는 특성을 중요시하면서 문화의 영향이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양적 자료를 통한 비교문화이다(Berry, 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2002).

상대적 비교를 기본으로 하는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지식과 통찰은 상당하다(Ratner,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특정 사회의 사람들이 보이는 삶을 충분히 만큼 세세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또한 그들이 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지 그 이유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연구는 주어진 한 단편적인 시점이나 순간에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의 일부 표본만을 포착하여 그것을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즉, 이런 연구는 어느 한 문화의 사람들이 보이는 삶을 풍부하면서도 포괄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그 일부를 비교하여 문화적 차이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자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주어진 문화적 맥락과 상황적 특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는다.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에서 축적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체계적으로 엮은 것이 역사이다. 주어진 시공간에서 인간이 한 모든 행위 그리고 그 산물은 역사라는 피륙을 구성하는 씨실이며 날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행위와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다룬 종단연구는 우리 사회가 지닌 심리의 역사이다. 한 사회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역사를 연구해야 하듯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심리적 궤적을 그리면서 삶을 영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해야 한다. 이런 연구 없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본질적 차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연구는 처음부터 불안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단연구는 특정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종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소모된다. 결국 고전적인 종단연구의 상당수는 국가나 도시 또는 기업체나 학교와 같은 대규모 조직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아래에서 가능했다. 가령 미국 위스콘신 주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위스콘신 종단연구(Wisconsin Longitudinal Study)는 1957년 위스콘신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10,317명을 대상으로 50여 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이다(Herd, Carr, & Roan, 2014). 암스테르담 노화종단연구(Longitudinal Aging Study Amsterdam)는 55-84세의 네덜란드인 4천 여명을 대상으로 1991부터 6년 동안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의 변화를 추적 조사했다(Hoogendijk, Heymans, Deeg, & Huisman, 2018). 베를린 노화종단연구(Berlin Aging Studies)나 호주 종단연구(Australian Longitudinal Study) 등도 자국의 사람들 특히, 성인기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탐구했다(König, Drewelies, Norman, Spira, Buchmann, Hülür et al., 2018; Peeters, Rainbird, Lorimer, Dobson, Mishra, & Graves, 2017).

앞에서 살펴본 연구처럼, 특히 성인기 사람들의 삶을 종단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한 이유를 성인기의 삶에서 드러나는 큰 변산성에서 찾을 수 있다.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은 유전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개인차가 있다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의 전체적인 발달 패턴은 유사한 방향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커지면서 사람마다 발달의 패턴이나 궤적도 다양해지고 그들의 발달상 개인차도 폭발적으로 커진다(Yam, Gross, Prindle, & Marsiske, 2014).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갈지 한 두 개의 규범적인 발달 패턴으로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인기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때에만 그들 둘러싼 어떠한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이 그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사례가 여럿 있다. 예를 들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4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과 건강 등을 측정한 것이

나 15세 이상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가계경제, 취업, 혼인여부, 삶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한 것이 있다(홍민기·최형재·강신욱·김현경·윤명수, 2017).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경제상황 중심으로 측정한 것도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빈곤층의 생활실태, 복지수준 등을 알아본 것도 있다(백화종·김안나, 2004). 그리고 노화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규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이나 패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령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회변화를 밝혀주고 있으며(김태완, 2017), 대학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종단연구들은 노화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를 제공하고, 노인의 인지능력의 변화 및 정서경험과 성격의 변화를 밝혀주고 있다(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종단연구들은 그 기간 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 연구의 기간이 수년에 국한되어 있어서 참가자들의 삶이 보여주는 변화를 충분히 관찰하지 못했다. 또한 측정한 변인들이 기존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 치중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리 그리고 그러한 심리를 유발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종단연구는 우리의 삶이 걸어온 길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길을 걷는데 관련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연구는 단지 사람들의 삶의 여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사회의 모습도 동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의 심리적 측면을 다룬 종단연구는 우리의 역사를 세우는 일이다. 새로운 유형의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일을 우리 사회가 아직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종단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사회적 가치와 미래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태완 (2017). **2017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화종 · 김안나 (2004).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2009). **한국노인의 삶의 질 2**. 서울: 소화.
- 홍민기 · 최형재 · 강신욱 · 김현경 · 윤명수 (2017). **노동패널자료 연구(III):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Baltes, P. (1968).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sequences in the study of age and generation effects. *Human Development*, 11(3), 145-171.
- Berry, J., Berry, J., Poortinga, Y., Segall, M., & Dasen, P.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d, P., Carr, D., & Roan, C. (2014). Cohort profil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WL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3, 34-41.
- Hoogendijk, E., Heymans, M., Deeg, D., & Huisman, M. (2018).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frailty among older adults: Results from a 10-Year Longitudinal Study in the Netherlands. *Gerontology*, 64, 157-164.
- Kaplan, A. (2017). *The conduct of inquiry: Methodology for behavioral science*. Abingdon, England: Routledge.
- König, M., Drewelies, J., Norman, K., Spira, D., Buchmann, N., Hülür, G. et al. (2018). Historical trends in modifiable indicators of cardio-vascular health and self-rated health among older adults: Cohort differences over 20 years between the Berlin Aging Study (BASE) and the Berlin Aging Study II (BASE-II). *PloS one*, 13(1), e0191699.
- Little, D. (1991). *Varieties of social explana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Peeters, G., Rainbird, S., Lorimer, M., Dobson, A., Mishra, G., & Graves, S. (2017). Improvements in physical function and pain sustained for up to 10 years after knee or hip arthroplasty irrespective of mental

- health status before surgery: 9,737 middle-aged and 9,292 older women from the Australian Longitudinal Study on Women's Health and National Joint Replacement Registry. *Acta Orthopaedica*, 88(2), 158-165.
- Ratner, C. (2008). *Cultural psychology,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indigenous psychology*.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 Yam, A., Gross, A., Prindle, J., & Marsiske, M. (2014). Ten-year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older adults' basic and everyday cognitive abilities. *Neuropsychology*, 28(6), 819-828.
- 원고접수일: 2018. 03. 12.  
수정원고접수일: 2018. 04. 23.  
원고게재승인일: 2018. 05. 02.